



'2013 U대회 광주로' 실사 D-3

경쟁도시 준비 상황

스페인 비교, 친환경 대회 역점 실사 마쳐

'3修 카잔' 대통령 당선자까지 나서
광주 '시민 열기'로 차별화 유치 총력

광주시와 2013 하계 U대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비교가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국제 대학스포츠...

한 실사 준비로 대회 유치를 견인할 방침이다. 스페인 비교에 대한 실사에는 스웨덴 집행위원인 스테판 버그를 단장으로...

진행했다. 27일 FISU 공식 홈페이지(www.fisu.net) 뉴스에 따르면 비교는 실사단 방문 첫날 아벨 카발레로 시장의 공식 환영만찬에 이어 산티아오 도밍구즈 부시장 등의 유치 프로젝트 설명 등 일정을 소화했다.

선수촌과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 U대회 선수촌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건축가 미구엘 포라스씨가 참석,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선수촌 조성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의 적극지지와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바탕으로 실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교수 내정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조속히 다음 달 새 출발할 예정이지만 신임 위원장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행정도시 현법소원을 주도한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수도론 주장자가 균형발전 맡는다?

정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다음달 본격 재가동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위원 인선을 비롯한 실무진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에는 최상철(68)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청문회 못열릴 듯

한나라당 반대...국정조사도 어려워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국회 과반의 석 점유를 기반으로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 청문회로 변경될 밖에 없다. 하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큰 차이가 없어 야권의 선택지에서 벗어나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청문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는 어렵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사안을 규명하고 따지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축산업 경쟁력 정부대책 촉구...李대통령 축산농가 달래기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관련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축산농가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의 거의 절반을 소방법 문제점 지적에 할애했다. 전날 축산농가 방문에서 느꼈던 점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며 "소방방재청장(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줘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화우(和牛, 일본식 발인 '와규')'를 소개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

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일해 나가면 잠시 이해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흔들려선 안 되고 올바른 자세로 일관되고 신중하게 일해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a festival with a pink and blue background, featuring text about '축산농가 달래기' and '축산업 경쟁력 정부대책 촉구'.